

2024년 7월 17일

미디어 전용 웹사이트:  
[asia.si.edu/press](http://asia.si.edu/press)

미디어 담당자:  
노소연 (Ariel Noh)  
[ariel@suttoncomms.com](mailto:ariel@suttoncomms.com)

## 미국 국립아시아미술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최초로 한국 문화예술 큐레이터 임명

황선우 큐레이터는 미술관이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한국 문화예술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것입니다.



Sunwoo Hwang / Courtesy of Sunwoo Hwang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Smithsonian's National Asian Art Museum)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 담당 큐레이터로 황선우씨를 임명했다. 까다로운 선정과정을 통해 황선우씨는 2024년 4월 큐레이터직에 임명되었다. [본 직책](#)은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매칭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그리고 미술관은 전시담당자를 위한 추가 기금 마련으로 전체 예산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공하는 이번 기금은 미술관에 대한 오랜 지원 역사에서 출발하였다.

미술관의 역사가 두번째 세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함에 따라, 황선우 큐레이터는 한국 프로그램과 소장품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리더십을 제공하고 한국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와 발표에서 국내외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국립아시아미술관은 프리어 미술관(Freer Gallery of Art)을 시작으로 개관한 이래 미국에서 한국 미술을 전시한 최초의 미술관 중 한 곳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 문화예술 담당인 황선우 큐레이터는 미술관에서 점차 늘어나는 [한국 컬렉션](#)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 중 다수의 작품들은 한국을 벗어난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소장품이다. 본 큐레이터는 프리어 미술관에 한국 상설 전시관을 재설치하고, 기증과 소장 활동을 통해 미술관 소장품을 확대하며 다각화할 예정이다. 또한 그녀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5~2026년에 선보일 주요 한국 미술 걸작전의 대여 전시를 기획할 예정이다. 본 전시는 이근희 전 삼성 회장 일가가 최근 기증한 수준급 작품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전문적인 학술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미술관에서 획기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그녀는 2018년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 챌린저 인턴으로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다시 돌아와 5년간의 국립아시아미술관 큐레이터 트레이닝 펠로우십 과정을 2023년 완료하였다. 그 기간 동안 황 큐레이터는 다음과 같은 두 건의 전시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기여했다. “[신성한 봉헌: 한국 불상](#)”(Sacred Dedication, 2019)과 “[한국의 치미: 사라진 한국 건축](#)”(Once Upon a Roof: Vanished Korean Architecture, 2022). 그녀는 또한 출판물인 [목조관음보살좌상](#)(Research Report on a Seated Wooden Avalokiteshvara, 2019)을 번역하였다. 2020년 국립아시아미술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바 있는 [한국 불상과 봉헌 실천](#)(Korean Buddhist Images and Dedication Practice)을 동기관 고대 중국 예술 큐레이터인 키스 윌슨(Keith Wilson)과 공동 편집하고 있다. 황 큐레이터는 2009년 시카고 대학에서 인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에서 중국 산시성 불교 벽화를 전공하고 있다.

미술관 관장인 체이스 F. 로빈슨(Chase F. Robinson)은 “동료들과 나는 선우씨가 우리 큐레이터팀에 합류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우리 전시장, 프로그램, 그리고 공공 공간에서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그녀의 시각과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합니다.”라고 황 큐레이터는 말했다. 또한 “미술관이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큰 뜻과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것은 흥분되는 시간입니다.”라고도 생각을 밝혔다.

## 한국 문화예술 이니셔티브

황선우 큐레이터는, 미술관이 한국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시기에 이 미술관에 합류했다. 스미소니언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4월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국립아시아미술관은 오랫동안 한국 미술 전시를 선보여오고 한국 미술을 학문적으로도 꾸준히 연구해온 이력을 기본으로, 이를 통해 본격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통한 최근 전시인 “[박찬경: 모임](#)(Park Chan-kyong: Gathering)”은 미술관의 새로운 현대 및 컨템포러리 전시실의 개관전임을 알리고 있다. 이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박찬경의 작품이 미국 주요 미술기관 최초로 진행되는 개인전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최근 학술 활동으로는 ‘한국 불상과 봉헌 실천’ 심포지엄(2020년 2월 20~21일), ‘한국 고대 건축의 맥락’ 웨비나(2022년 7월 26일), 한국 석학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한 강봉원 교수(2022) 초청 등이 있다. 한영버전 디지털 카탈로그인 “[고려 불화: 자세히 보기](#)(2019)” 등 여러 출판물을 제작한 바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점차 커짐에 따라, 미국 국립아시아미술관은 영화, 음식, 음악, 공연 등을 통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역사적인 한국 미술작품의 소장량을 점점 늘리고 있다. 미술관 10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한 2023년 5월에는 그래미상을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퍼 고(Jennifer Koh), K 팝 아티스트 에릭남(Eric Nam) 등 한국의 유명 음악인들이 출연해 4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석했다. 2023년 9월, 미술관은 추석에 맞추어 한국 문화예술을 기념하는 새로운 연례 행사를 선보였다. 5,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방문해 연간 행사 중, 일일 행사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 중 하나가 되었다.

## 국립아시아미술관

## 소개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은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예술을 보존, 전시, 연구 및 해석하는 데 전념한다. 46,000점 이상의 유물이 있는 본 미술관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중국, 일본, 한국,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이슬람 세계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북미 최대의 가장 포괄적인 아시아 컬렉션 중 하나이다. 방대한 소장품을 통해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 작품의 중요한 컬렉션과 아시아 예술을 직접 조망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아시아 및 중동 간의 창의적인 협력과 문화 교류를 위한 필수적인 교두보로 기능한다.



Smithsonian

SI-195-2024

#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1906 년의 기부를 초석으로 설립된 국립아시아미술관은, 1923 년 미술관을 개관하였다. 미국과 전세계 관람객, 학생 및 학자를 위한 최상급 자원의 보고임을 자부한다. 전시장, 연구실, 기록 보관소 및 도서관은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2,700 만 명이상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미술관 단지내에 위치한다. 미술관은 1 년 364 일(크리스마스 휴관) 무료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전시회, 프로그램, 학습 기회 및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전세계 관객이 이용할 수 있다.

미술관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asia.si.edu](http://www.asia.si.edu)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 [@natasianart](https://www.instagram.com/natasianart), 트위터: [@NatAsianArt](https://twitter.com/NatAsianArt) 그리고 페이스북: [@NatAsianArt](https://www.facebook.com/NatAsianArt) 을 팔로우할 수 있다.

###



Smithsonian

SI-195-2024